

80년대 視野에서의 古典

컬럼비아대의 '그레이트 북' 54選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70년대 후반 미국의 교육계에서는

종래의 추천도서목록을

현대적 감각에서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지난해 컬럼비아대학이

발표한 새로운 필독도서목록은

미국대학들의 교양교육에 관한

꾸준한 검토와 최근 경향을

가장 광범위하게 대변하고 있어

흥미롭다.

전통적 교양교육에 대한 反省

'敎養'이 무엇이나를 선명하게 논의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쉬운 책읽기가 교양의 가장 쉬운 출발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해 온다.

그래서 '교양교육'은 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지적능력의 배양에서 출발하여 자율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공학은 그 가장 큰 줄기에 제일 먼저 교양교육으로서의 책읽기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하기는 교육의 출발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구분없이 문학·사학·철학의 책읽기로부터 시작됐던 것이기도 하다. 교육과정보다 실

질적으로 기능화되면서도 인문교양교육이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러한 전통적 책읽기의 인문교육과정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습관적으로 읽어 내려오던 통칭 '文史哲'의 책목록들이 과연 평균적 교육의 목표인 '효과적 사고, 전달, 판단, 가치의 분별'의 네가지 능력을 이 시대에 맞게 키워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심각한 反問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반문에 가장 본격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미국의 하버드대학이었다. 하버드대는 그래서 오늘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우선 다시한번 정리했다. 80년초에 완성한 이 중핵(core)교육안은 교양교육의 명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표현했다.

- 1) 교육받은 사람은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하며 쓸 수 있어야 하고,
- 2) 교육받은 사람은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하며,
- 3) 교육받은 미국사람은 편협하거나 지역적이어서는 안되며,
- 4) 교육받은 사람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하며,
- 5)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개인은 어떤 분야를 심층적으로 전공하여야 한다.

이 중핵교육의 목표는 그후 많은 대학에

있어서 전통적 교양교육의 반성을 일으켰다.

'필독도서'의 새로운 觀點

지난해 미국의 스탠퍼드대에서 불과 15개의 고전작품으로 이루어졌던 필수교양강좌에 대한 목록 시비 역시 이 중핵교육의 3항에 깊이 연관된 것이었다. 스탠퍼드대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 목록에 들어있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루소」 「J.S.밀」들의 목록보다는 非西歐문명에 관한 저서들과 소수민족·유색인종에 대한 '문화와 사상'이 교육되어야 함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더욱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은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같이 바로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스탠퍼드대는 15개 고전의 필수교양강좌를 전면 폐지하고, 유색인종과 여성의 작품을 포함하는 새 목록으로 非西歐가치관까지를 강의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 지난해 컬럼비아대의 「그레이트 북 古典54選」이라는 목록이 새롭게 제시된 것이 있다. 교양교육에 관한 미국 대학들의 꾸준한 검토를 가장 광범위하게 대변하는 듯한 이 목록은, 그러므로 미국의 대학교양교육의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힘들다. 철학과 문학을 비롯하여 각분야 사상서들이 큰 저서, 작은 작품의 구분도 없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나열順 역시 특별한 이해를 돕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적 가치관을 아직도 대변하고

있는 브리태니커의 「그레이트 북스」목록(3월20일字 「출판저널」제16호 참조)과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상당히 신선한 감각을 표시하는 것만은 느낄 수 있다.

우리 대학들의 대학별 추천도서목록과 한 번쯤 비교해 볼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美컬럼비아대

「그레이트 북 古典 54選」목록

[註]

- 邦譯本 있음.
- 번역이 되어 있긴하나 현재 絶版상태-시중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뜻.
- 번역은 됐으나 그 번역수준은 읽기에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는 뜻.

- ① 헨리 아담스의 교육(헨리 아담스)
- ② 아가멤논(아이스킬러스)
- ③ 행복론/비극론/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이중 정치학만 ○)
- ④ 성경
- ⑤ 프랑스혁명의 고찰(에드먼드 버크)
- ⑥ 캔터베리아이야기(초서)
- ⑦ 로스차일드의 바이얼린/바나아저씨(안톤 체홉) (이중 바나아저씨만 ○)
- ⑧ 전쟁론(클라우제비츠)
- ⑨ 어둠속의 심장부(조셉 콘라드)
- ⑩ 煉獄(단테)
- ⑪ 인간과 하등동물의 감각(찰스 다윈)

풍속의 역사

- I 권 풍속과 사회
 - II 권 르네상스
 - III 권 色의 시대
 - IV 권 부르조아의 시대
- 각권 4,200원

에두아르트 폭스/이기웅, 박종만 옮김



저자는 인류의 기념비적인 저작 「풍속의 역사」를 통하여 풍속, 즉 풍장, 연애, 결혼, 사교 생활, 매춘 제도 등은 물론 종교와 사회 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다수의 제도와 행위가 성(性)에 의하여 크게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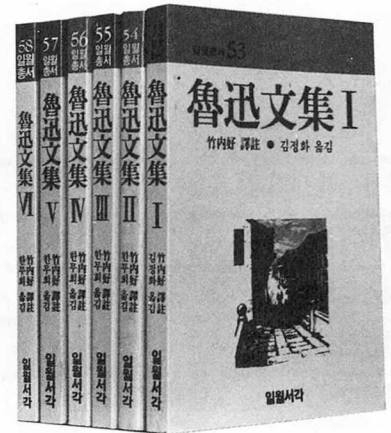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의 표출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민중의 미술 작품과 노래와 시와 속담, 만담, 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그 사회경제사적인 분석과 해석의 유니크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한다. 따라서 수많은 성에 관한 도판들이 등장함으로써 "음란저속"하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이유와 사회경제사적인 역사해석에 의하여 이 책은 히틀러에 의해서 강제 수집되어 불살라지는 비운을 맞기도 했으나 폭스 자신은 엄격한 모랄리스트로서 성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배려한 결과 노골적인 그림이나 인용은 따로 세 권의 "별책"으로 처리하여 전문가와 연구가에게 소용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리하여 이 책은 차라리 "성풍속의 사회경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가치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61-1
전화 : 735-8998, 736-7768

노신 작품 최초의 본격 소개

「魯迅文集」 전6권 출간



현대 중국의 대표적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신(1881~1936)의 소설과 평론이 번역·출판되어 중국문학에 관심있는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일서각에서 나온 「魯迅文集」(전6권)이 바로 그것.

우리나라엔 그동안 노신의 명성은 많이 알려져 왔으나 정작 노신의 작품은 「광인일기」나 「아Q정권」 같은 화제작을 제외하곤 거의 소개되지 않았었다. 특히 노신은 생전에 소설가 못지 않게 날카로운 평필을 휘두르는 사회비평가로 널리 추앙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반봉건 반식민상태에 놓여 있던 당시 중국사회의 여러 모순과 지배층의 비리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며, 새로운 문학운동을 통해 인습과 무기력에 잠겨 있던 중국인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분투했었다. 즉, 그는 서재나 상아탑 속에 갇혀 지내는 창백한 지식인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혁명적 지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문학연구자들로 하여금 노신 소개를 암암리에 기피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출판된 「노신문집」은 노신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竹內好(일본)의 譯註本을 완역한 것으로서 노신의 사상과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역자는 金貞和(충북대), 韓武熙(단국대) 교수. 일일서각은 1985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하여 3년만에 6권의 완간을 보게 되었다.

①권엔 단편소설집 「吶喊」과 「彷徨」이 실려 있고 ②권엔 「野草」「朝花夕拾」과 함께 신화·전설·고대사에서 소재를 얻은 작품집 「故事新編」이 수록돼 있다. ③권부터 ⑥권까지는 1918년부터 1936년까지 노신이 쓴 수필과 평론, 논쟁, 시국비평을 실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노신의 방대한 평론을 통해 우리는 노신의 선각자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반동적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의 허위의를 비판하는 한편 과격한 혁명 문학과와의 관념성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그래서 竹內好는 해설에서 노신이 '논쟁의 명수'이며, "활자상으로만이 아니라 전신으로" 논쟁을 벌인 지식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중국 근대문학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노신문집」의 완간을 계기로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노신전집」의 완역출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각권 A5신 / 320면 내외 / 4000원

— 남진우 기자

- ● ⑫ 관습과 의지(존 듀이)
- ⑬ 지하로부터의 手記(도스토예프스키)
- ⑭ 이피게네이아(에우리피데스)
- ⑮ 순진한 마음(플로베르)
- ⑯ 라모의 조카(디드로 데니스)
- ● ● ⑰ 文明과 갈등 / 꿈(프로이트)
- ● ● ⑱ 로마제국멸망사(에드워드 기본)
- ⑲ 파우스트(괴테)
- ⑳ 외투(고골리)
- ㉑ 연방주의자(해밀튼)
- ㉒ 페르시아전쟁(헤로도투스)
- ㉓ 정부의 기원(토머스 홉스)
- ㉔ 일리아드(호메로스)
- ㉕ 정의와 불의(데이비드 흄)
- ㉖ 정글의 야수들(헨리 제임스)
- ㉗ 변신(카프카)
- ● ● ㉘ 良心 / 도덕의 기본원리(칸트)
- ㉙ 신념의 수호자(키에르케고르)
- ㉚ 惡에 관해서(마이모니테스)
- ㉛ 소외된 노동(마르크스)
- ● ㉜ 시민정부론(존 로크)
- ● ● ㉝ 君主論(마키아벨리)
- ㉞ 빌리 버드(허먼 멜빌)
- ㉟ 자유론 / 공리주의(존 스튜어트 밀)
- ● ● ㊱ 염세주의자(몰리에르)
- ㊲ 경험론(몽테뉴)
- ㊳ 정부의 원칙(몽테스키외)
- ㊴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
- ㊵ 향연 / 소크라테스의 변명 / 공화국(플라톤)
- ㊶ 사회계약론(루소)

- ㊷ 神의 왕국(아우구스티누스)
- ㊸ 인간내면의 불멸성(쇼펜하우어)
- ㊹ 안토니오와 크레오파트라(셰익스피어)
- ㊺ 시저와 크레오파트라(버너드 쇼)
- ㊻ 개인의 자유(지멜)
- ㊼ 국부론(아담 스미스)
- ㊽ 안티고네(소포클레스)
- ㊾ 걸리버여행기(조너던 스유포트)
- ㊿ 시민불복종(헨리 데이비드 소로)
- ㊿ 펠로폰네수스 戰爭史(투키디데스)
- ㊿ 多數의 힘(토크빌)
- ㊿ 이반 일리치의 죽음(톨스토이)
- ㊿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54종 중 32종이 譯刊돼 있으므로 60%의 번역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물론 번역됐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수치이다. 보다시피 크레오파트라를 안토니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시저에 있어서는 버너드 쇼의 작품으로 읽기를 권할 만큼 작품과 작가의 관점과 사상을 세심하게 평가한 증거들이 다대한 목록이므로 原作의 내용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는 번역본들의 요구가 이 목록에서처럼 간절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목록들과 하버드대의 중핵 교육목표를 대비해 보는 일은 상당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것이다. 물론 이 저서들을 읽고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관상열대어사육과번식

박 수용 엮음/정가·7,000원

원색과 관상열대어에 관한 모든 지식을 수록한 大백과!
 ● 열대어와 금붕어의 종류와 특성
 ● 관상의 포인트
 ● 사육과 번식 기술
 ● 질병의 치료와 예방
 ● 인테리어 수조꾸미기 등이 초보에서 전문인에 이르기 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편집되어 있다.

개사육과 번식·훈련

편집부 엮음/정가·7,000원

● 다양한 개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종류
 ● 질병의 완벽한 예방과 치료
 ● 번식에 관한 포인트
 ● 개의 기질에 따른 길들이기
 ● 경찰견, 아역견, 인도견을 만드는 훈련의 과정과 방법 등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견인들을 위한 필독서!

화회 기사·기능사 이론과 문제

차 건성저/정가·미정

보다 전문화 되어가는 원예분야에서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완벽한 문제집.
 그동안 수십년간 원예에 종사·강의를 맡아온 차 건성씨가 집필한 화회 총서로 원예계통에서 꽃을 사랑하고 가꾸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